

‘영광 천일염 · 젓갈 · 갯벌축제’ 오늘 개막

‘금빛, 쪽빛, 별빛 염산빛의 여행’ 테마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항에서 ‘금빛, 쪽빛, 별빛 염산빛의 여행’이라는 테마로 제10회 영광 천일염·젓갈·갯벌축제가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된다.

영광의 천일염 생산량은 전국대비 1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간척지 갯벌의 발달로 갈슘, 갈뚝, 마그네슘 등 미네랄 함량이 타지역의 천일염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축제는 우리나라 황금어장인 칠산바다를 품어 안고 생산되는 특품 천일염, 명품 젓갈, 갯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칠산타워와 국가어항인 향화도항 일원에서 다양한 체험행사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향화도 수산물 경매, 내가 소금전하장사 소

금산 소금 퍼가기, 보리새우잡기, 수산물 비빔밥 시식회, 지역문화 향토공연(글로리 예술단), 권역별 주민가오제 등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구성돼 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영광 천일염·젓갈·갯벌축제의 시작을 다함께 축하하는 개막식행사는 30일 오후 7시 20분부터 시작하며, 폐막식행사는 9월 1일 오후 6시에 시작하여 모든 축제를 마무리한다.

영광=서희연 기자

곡성군, 강소농 대상 농식품 브랜드 개발 컨설팅 실시



곡성군은 지난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4회에 걸쳐 강소농 10명을 대상으로 농식품 브랜드 개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강소농 경영개선실천 교육을 꾸준히 이수하고 농장을

소유하면서 농산물을 재배 또는 판매하고 있는 우수 강소농 10명이 참여했다. 강사로는 팜앤디 협동조합의 서동선 대표가 초빙됐다. 서 대표는 2년 전 곡성으로 귀농해 농업농촌 전문 솔루션 및 서

비스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다. 올해 상반기에는 앱 기반 영농일지인 스마트영농파트너를 개발해 기재부로부터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서 대표는 농산물 생산부터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파악해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 접근을 바라보고 서비스를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 역시 디자인 씽킹과 비즈니스적 사고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 참석자들은 브랜드 경험에 대한 개념을 사례와 함께 자신의 제품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학습하고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화순군, 소형 건설기계 교육 참가자 전원 면허취득



화순군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농업인 20명이 참가한 소형 굴삭기와 지게차 면허 취득반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면허취득반 교육에 참가한 농업인 20명은 소형 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했다.

3톤 미만 굴삭기·지게차는 소형 건설기계로 분류돼 작동원리, 운전조작, 안전사고 예방 요령 등이론과 실습 교육 12시간을 이수하고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조종할 수 있다.

군은 건설기계 사용 현장에 자주 사용되고 있고 농기계의 대형화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중 하나로 면허 취득반을 운영해 왔다.

면허 취득반은 중장비 자격증 교육 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크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규모가 확대되고 대형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농기계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현장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보성군, 퓨전국악이 있는 ‘청출어람 콘서트’ 개최

보성군은 오는 9월 5일 오전 9시 40분 보성 향교 특설무대에서 ‘서제이와 퓨전국악이 함께하는 청출어람 콘서트’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서제이와 국악인 김산옥을 필두로 다운소리 퓨전국악팀 등이 함께하며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재해석해 누구나 즐

길 수 있도록 편곡해 남녀노소가 한자리에서 함께 공감 할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청출어람 콘서트에서는 퓨전국악팀의 ‘배피워라, 하늘길, 너영너영, 프론티어, 난감하네, 보리타작, 진도아리랑’ 연주와 가

수 서제이의 ‘사랑하는 이에게, 아리랑, you raise me up, 거짓말이라도 해봐, 흐린 가을하늘에 편지를 써, 해야’ 그리고 2019년 새롭게 선보이는 신곡을 감상할 수 있다.

보성=안규일 기자

순천시 ‘전남도 일자리플랫폼’ 조성 대상지 최종 선정

순천시는 전남도의 모든 일자리 관련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전남도 일자리플랫폼 건립 대상지로 순천시가 최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남도 일자리플랫폼은 2017년에 무안군에 임시 개소해 전라남도 일자리 종합센터, 전남 고용혁신추진단, 일자리평가분석센터, 창업지원플랫폼, 청년 마을로사업 매니저 등 총 5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항구적인 기관과 조직 구축을 위해 전라남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공모를 실시하였고 순천시가 최종 선정됐다.

전남도 일자리플랫폼은 일자리 정보의 통합관리와 구인, 구직 매칭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의 종합 취업 지원서비스,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성장, 판로지원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

또한 일자리 사업 기획 및 집행, 일자리사업 모니터링 평가 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용예측 및 미래 일자리 환경 예측 등을 시행하고 있다.

순천시 허석시장은 “이번 공모선정으로 순천시에 조성될 일자리플랫폼은 전남도 등부권 통합청사와 함께 순천시가 전남도 일자리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흥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소득 환산율 2.08%

고흥군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기존보다 더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화된 기준은 부양의

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월 4.17%에서 월 2.08%로 완화하는 것으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증가 효과와 더불어 반영하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50%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

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

기준이 완화되면 재산기준 초과로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않았던 대상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고흥=한윤섭 기자

여수시, 예산결산 요약집 ‘첫 선’

여수시 살림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산결산 요약집이 29일 발간됐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보는 여수 살림살이 특’을 만들었다고 밝혔

다.

총 27쪽으로 이뤄진 이 책은 180쪽에 달하는 결산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

일반현황, 세입세출결산, 재무결산, 한눈에 보는 여수 살림살이

로 구성돼 있으며, 도식화를 통해 가독성을 높였다.

여수시는 29일 요약집을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했다.

또한 30일에는 시 홈페이지에 전자북 형태로 게시할 계획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근무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